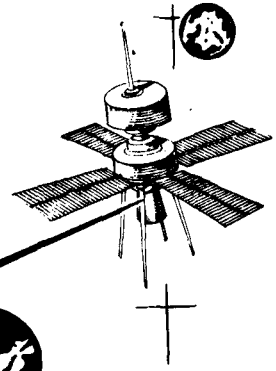


양계 안테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불합리한 사료용 국산옥수수

농협은 금년도 국내산 옥수수 약 7만톤을 연말까지 수매할 예정으로 전년도 보다 14% 수매가를 인상해 2백52억원을 배정했다.

수매할 옥수수는 주정 등 공업용 25%, 배합사료용 75%로 배분해 소비할 예정인데 사료용으로 소비할 물량이 약 5만톤에 달해 운임, 수수료 등 인수조작비를 포함하면 사료업계에서 배합사료 원료로 무려 170여억원의(kg당 450원 예상) 추가 부담을 안게 되는데 기업인 사료공장에서 이를 각별한 경영합리화나 기업손실로 자체에서 충격을 안지않는 것은 전례로 보아 자명한 사실이다. 어떠한 방법이든 곧바로 사료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개방화시대에 몸살을 앓고 있는 축산농민이 또다시 비싼 배합사료를 고스란히 인수할 수밖에 없다.

관련연계에 의하면 전체사료원가 1%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전한다.

전년도에도 축산농민은 소·돼지·닭·계란 등 생산물을 제값도 받지 못하면서도 강원도 옥수수 재배농가가 생산한 옥수수를 배합사료 원료용으로 4만8천여톤을 소비하였고 약140억원 정도를 축산농민은 묵묵히 부담한 바 있다.

전통적이고 보수성이 강한 과묵한 축산 농민들이

기에 정부의 국내 옥수수 재배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에 수궁해 이제까지 큰 부담을 안고 왔으나 이시대 축산농민만이 큰 짐을 지기에는 너무도 불합리한 처사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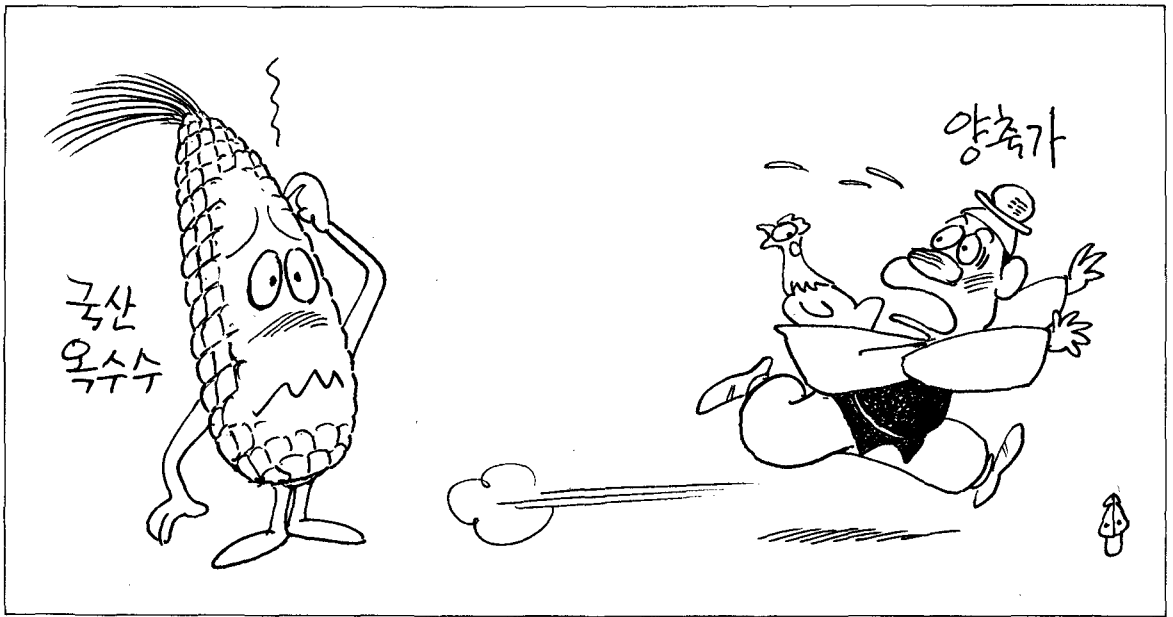
축산업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외적인 개방화물결에 따라 수입개방에 대비,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옥수수 경작농민을 위한 부담을 축산농가에 전가시키기 보다는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용으로 사용함이 마땅할 것이다. 또는 축산진흥기금 등에서 차액을 부담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서는 농정을 펴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기대된다.

사료공장에서도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양축가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국산옥수수 구매행위 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양축농민은 주시하고 있다.

경제선진국과 양축가 빈곤

우리나라가 11월 1일부로 경제분야의 UN(국제연합)으로 비유되는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條國)



에 정식 가입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선진국 대접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까지 개발도상국으로 IMF 14조국에 속해 있어 국제수지적자·외채 등으로 외환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예외적인 외환조치를 허용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경제 선진국으로 국제적인 의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IMF 8조국 가입은 IMF 151개국 중 선진국 66개국이 소속되어 외환거래가 완전자유화로 이루어진다. 경제계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가 커져 대외 이미지 개선과 교섭능력의 제고 등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8조국 가입으로 국제적인 선진국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규정하는 GATT 11조국(條國)의 의무조건 준수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GATT 11조는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수입제한을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선진국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농산물의 수입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제한했던 명분을 잃게 된 것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해 미국·호주·뉴질

랜드가 GATT에 제소한 농산물 등에 의한 불공정 무역거래행위가 최근들어 한국이 패소할 조짐이다.

미국은 계란, 난황의 감시품목 해제와 쇠고기, 치즈, 통조림 등 74개 농축산물에 대해 수입제한을 해제해 줄 것과 동물 수정란, 정액, 배합사료 등 36건에 대해서도 특별법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내년에 121개 농축산물 추가 개방추구를 하고 있다.(표참조) 계속해서 개방요구 품목은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현재 91년까지 3개년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예시제를 통해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상최대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후 경제선진국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자부는 모든 국민이 공유한 기쁨이며 양계인들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치닫는 선진국화의 그늘아래 최근 많은 양축가들과 양계인들이 타산업으로 전업을 서두르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힘든 노동에 비해 상대적인 수익성 감소, 수입개방 등에 의한 불확실한 미래는 양축가들을 방황하게 하고 있다. 농민의 생업보호는 물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다 확고한 의지의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민주화과정에서 심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



◇ 미국의 89년도 수입개방 요구품목 내역 ◇

구 분	품 목
수입제한 해제 : 74	쇠고기(6 : 신선, 냉장, 냉동, 뼈있는것, 뼈없는 것 등), 식용설육(9), 가공류 식용설육(6), 가공 치즈, 동물의 장, 동물의 위, 소시지, 쇠고기통 조림, 육엑스, 육아용 조제분유(2), 에버카도, 오렌지, 포도, 헤즐넛(2), 호도(2), 피스타치 오, 페칸, 사과, 배, 복숭아, 메론, 파파야, 크 렌베리(빌베리), 키위, 켈리류(5), 파인애플통 조림, 배통조림, 복숭아통조림, 오렌지쥬스(4), 토마토쥬스, 사과쥬스, 포도쥬스, 채소쥬스, 초 분류말기(신선), 대두분, 대두유(3), 견과류 통 조림(2), 고단백 농축물(2), 해바라기씨유(2), 옥수수유(2)
특별법제한 해제 : 36	동물의 수정란, 소정액, 기타 동물의 정액, 건조 완두, 이집트콩, 녹두, 팥, 강남콩, 기타콩, 렌 즈콩, 참두, 기타 채두류, 듀럼종밀, 메슬린, 기 타밀, 호밀, 귀리, 옥수수(3), 감자의 분과조분, 감자 프레이크, 옥수수 전분, 낙화생유(2), 대 두, 알팔파, 설육의 조분과 펠리트, 수지박, 배 합사료(3), 사료첨가제(4)
감시품목 해제 : 11	조란 및 난황(4), 초분류말기(3 : 가당), 냉동감 자, 건조양파, 마늘(2 : 건조, 냉동)
계	121개

라는 궁극적으로 소득의 효율적인 재분배에 의한
경제적인 민주화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때 사회
적인 갈등이 멎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민착취정책에 의한 경제선
진국 진입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오늘날 선진
제국의 성장율이 타산업 부문에 비해 낮은데도 불
구하고 농업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농민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
이다.

농업은 산업, 경제, 문화, 인간적 가치관의 뿌리
로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으로 생명연장의 전략산업
이다. 농업부문이 국제사회의 경제선진국 대접의
그늘에서 계속 소외된다면 불균형에 의한 정치·사
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농업부문의 부담을 경제적
선진국 진입으로 이끈었던 무역·공업·서비스분야
가 대신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경제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
에서 농산물 수입제한의 명분을 점차 잃어가는 우
울한 농민을 위한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지원이 필
요하다.

양측기는 정부의 축산물 자금목표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의 방향제시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
기발전 계획을 통해 확실한 미래예측을 할 수 있다

록 선도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선진국의 풍요속에 양축농가의 빈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추전문사육 활기

채란계 농장의 인력난 해결과 저난가시대 자본회전을 높이기 위해 전문화된 중추전문사육 농장의 중추를 구입해 사육하는 농장이 늘고 있다.

산란계사와 격리되어 질병에 의한 피해도 반감되고 육성율이 높고 육성사시설을 산란계사로 활용해 단위당 사육수를 늘려 성계관리에 전념할 수 있으며 생산비개념의 단순화로 비교적 경영의 합리화가 가능해 집단사육농장, 대단위 사육농장에서 중추전문농장의 70일령 전후의 병아리를 구입 사육하는 농장이 전체 30%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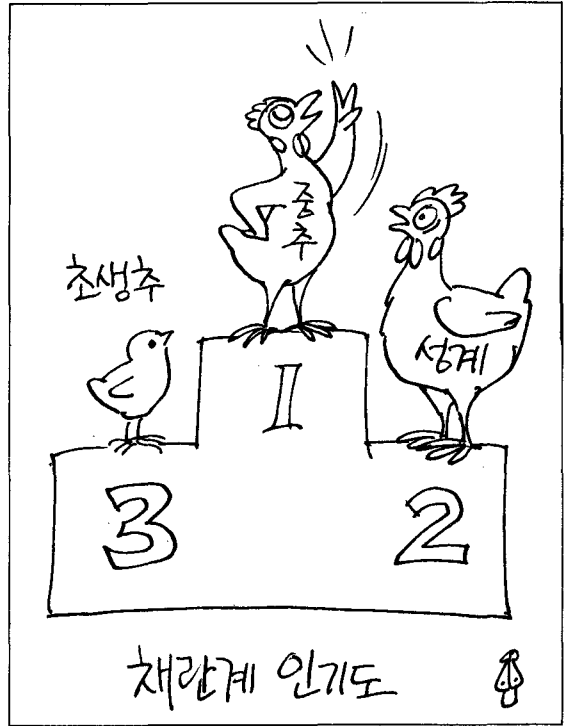
중추전문사육농장은 80년대 초부터 경기도 일원에서 주문사육에 의해 소규모로 실시되었는데 최근에는 육성중 관리여하에 따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방접종 등 까다로운 관리방법에 따라 점차 전문화,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사업성도 높다고 한다.

중추전문사육농장은 지속적인 인력관리와 백신접종, 대량으로 일시에 입출하해 질병관리 등이 용이한데다 기술축적으로 체중조절에 의한 균일도 유지, 육성율·성계 경제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개 주문사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 30여개 농장이 전문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병아리·사료·약품·인건비·관리비·수송비 등 제비용에 마진 포함 70일령 마리당 1,600~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중추를 받아 기르다 보면 산란 전기간이 지나야만 성적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해 일부에서는 체중조절위해 육계사료를 먹이는 경우도 있고 방역(백신)프로그램, 점등, 디비킹 등 특수관리, 환경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육종전문사가 중추농장을 연결해 산란적



전인 16주까지 사육해서 성계사로 보내는데 모든 백신프로그램을 끝내고 성계사편입후 도태까지는 백신을 하지않고 오직 알만 생산하는데 전념한다. 우리도 점차 일령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추를 구입시 가급적 주문사육하고 육추과정의 관찰, 백신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산란계사 이동시 혈청검사성적 첨부, 사양관리 일지 등을 반드시 넘겨 받아야 하며 균일도, 체중은 임의추출 계근하고 정강이 길이를 재서 골격형성이 제대로 되었는가도 체크해야 한다. 이때 부화장에서 제시하는 품종별 사양지침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개인들에 의한 가격덤핑(마리당 800원~1천원) 중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농장은 4만수를 받아 폐사가 심해 산란기간에 1만5천수가 남았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양계업이 전문화, 분업화되면서 중추사육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간혹 불건전한 중추유통으로 피해가 일고 있는데 건전한 채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추농장 정보교환을 위한 중추전문사육 농장 협의체 구성도 생각해 보직하다. **양계**